



인식의 주체로서의 개인 존 스튜어트 밀과 소크라테스 대화법의 만남에서

이호규 동국대학교-서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밀이 의견의 표현 자유와 소크라테스 대화법에 근거한 토론의 자유를 강조한 이유는 개인 인식의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 논의는 밀의 개별성 논의와 맥을 같이 한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인생의 목표를 선택하는 능력의 개별성을 확보함으로써, 당시에 목격되었던 동조 현상으로 인한 개인 인식의 주체성 상실을 상쇄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정 경험과 주제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의견을 타인의 그것들과 비교/대조함으로써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자신의 결점을 파악할 수 있는 토론의 질서를 밀은 소크라테스 대화법에서 찾고자 했다. 비록 열려있는 대화라도 암묵적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토론참가자들이 타인의 문제점을 드러내어 비난하고, 남에게 자신 의견을 강요하지 않는 자유롭고 평등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 대화법을 바람직한 토론 방법으로 밀은 간주하였다.

KEYWORDS 인식의 자유, 인식의 가두리, 소크라테스 대화법, 인식의 주체

* hokyulee@dongguk.edu

1. 서론

존 스튜어트 밀은 자신이 플라톤의 철학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다. 밀이 언급한 플라톤의 사상은 플라톤의 이데아 논의가 아니라 플라톤 초기의 소크라테스 대화법¹⁾을 의미한다. 대화법은 자신 의견의 모순을 스스로 깨닫고 수정하게 하는 데 의의가 있다. 밀에 의하면, 19세기 영국에서 다수의 사람이 해당 주제에 대해 충분한 생각과 정보가 없이 타인들의 의견을 추종하는 경향이 있었다.²⁾ 결과적으로 타인들의 의견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이 마치 자신의 의견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을 그는 우려하였다.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사고력(precise thinking)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화법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간주하였다(Mill, 1873/2010, 33쪽, 1859/2013, 89쪽).

밀은 자신과 같이 소크라테스가 민주주의에서 관찰되는 동조자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보았다.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들을 공격한 근거는 그들이 그릇된 의견들을 일반인들에게 말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당시 일반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의견들을 반복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아테네의 지배적인 여론을 진리처럼 생각하게 하였다(Mill, 1866, p. 361).³⁾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일반인들이 “전통적인 의견들과 동시대

1) 본 논문에서는 대화법이라 언급하고자 한다.

2) 토크빌이 <Democracy in America>에서 밝혔듯이 민주주의에서 어떠한 사안에 관하여,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나타난다. 다수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수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강요하는 다수의 횡포가 나타난다. 반면에, 소수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일부가 어떠한 성찰도 없이 다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는 동조 현상을 밀은 염려했다. <자유론>은 다수의 횡포와 동조 현상의 폐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본 논문에서 논의하는 인식의 주체를 강조하였다고 연구자는 해석하였다.

3) 본 논문에서의 밀의 저작물은 1960년에 설립된 Liberty Fund의 Online Library of Liberty (<https://oll.libertyfund.org>)에서 접근 가능한, 1963년 토론 토 대학교수인 Robson, J. M. 이 편집한 총 33권의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의 pdf 파일을 참고하였다. 해당 저작물의 쪽수는 pdf 파일의 쪽수를 언

의 감정들을 궁극적인 진리”(Mill, 1866, p. 364)로 받아들이는 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동의 혹은 반대하는 근거가 되는 진술의 “모호한 일반성(vague generalities)”(Mill, 1866, p. 370)을 논리적으로 파헤침으로써 명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소크라테스는 통상적으로 진리라고 확정된 모든 것들을 의문시하였으며,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는, 당시에 유행하였던 표현들 일부가 왜곡된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목격하였다. 대화법은 사회에서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지는 진리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밀에 있어서 자유의 상실은 바로 사람들 마음의 노예화를 의미한다. 밀은 〈자유론〉에서 영국의 19세기 상황이 소크라테스가 당시의 아테네 상황을 우려하였던 부분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Mill, 1859/2013, 25-26쪽).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밀은 생각과 토론의 자유를 강조하였다. 밀이 우선으로 생각한 것은 토론의 자유다.⁴⁾ 밀은 토론의 자유의 중요성을, 첫째, 사회에서 억압하고자 하는 의견이 진실일 때, 둘째, 의견이 오류일 때, 마지막으로 의견이 부분적으로 옳고 그를 때 등의 세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Mill, 1859/2013, 102-103쪽). 밀은 주장하기를, 우리들의 의견이 여러 검증 절차를 거쳐서 옳다고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의견을 반대하는 의견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 비록 옳은 의견이라도 생명력을 잃으면서 “죽어있는 독단(dead dogmas)”이 된다(Mill, 1859/2013, 73-74쪽).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지지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비록 자신이 옳고 타인이 옳지 않아도, 옳지 않은 의견과 대화를 함으로써 자신의 의

급하였다.

4) 밀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가 밀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을 주장하였다고 하는데, 밀은 표현을 항상 의견과 관련지어 언급하였다. 이 부분에서 표현의 자유와 의견의 표현의 자유의 차이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견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갖게 되고, 더불어 타인은 자신의 논리적 근거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계기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밀이 논의하고 있는 대화법의 어떠한 특징이 밀이 우려하고 있는 현상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밀의 대화법에 대한 이해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밀의 대화법에 대한 논의는 밀이 저술한 <논리학 체계(System of Logic)>에서 상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논리학 체계>에서 밀은 일반적인 용어들에 내재하고 있는 모호한 의미의 위험성을 대화법의 특징에 근거하여 서술하고 있다. 밀에 있어서 논리는 연역적/귀납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 이외에 개념의 형성 과정을 서술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지적함을 의미한다. <논리학 체계>는 밀의 사상을 일관성 있게 만들고 있으면서 밀의 토론의 자유에 관한 논의에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Ryan, 1997, p. xxxv).

둘째, 밀의 <논리학 체계>와 그 외의 저작물에서 논의하고 있는 대화법과 밀의 인식론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밀이 토론의 자유와 인식의 자유를 위해 대화법이 왜 중요한지를 주장한 근거를 찾고자 한다. 존 스튜어트 밀과 대화법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해외에서는 다음의 몇몇 연구들(Devigne, 2006; Loizides, 2013; Villa, 2001)이 있지만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개인의 성격과 플라톤의 연구 방법에 관한 밀의 분석에 관한 연구들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밀의 인식론에 대한 논의와 대화법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마지막으로, 밀이 주장하고 있는 토론의 자유가 인식의 주체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밀이 대화법에 관심을 두게 된 이유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밀이 해석한 대화법의 특징을 논의한 후에 4장에서 대화법이 밀이 고민하였던 토론의 합리적인 절차, 개인 인식의 자유 등을 어떻게 보장하고, 인식의 주체로서의 개인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

는지에 대해 밀의 인식론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살펴보고자 한다.

2. 개인의 인식 자유를 위한 소크라테스 대화법

1) 급진주의자들 담론의 위험성

밀은 〈자유론〉에서 국가와 사회가 개인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합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강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강요에는 직접과 간접의 두 가지의 형태가 존재한다. 직접적인 강요는 타인의 이해관계를 침해하였을 때 법적으로 제재를 하는 것이고, 간접적인 강요는 타인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명백한 행위가 없지만, 도덕적으로 비난을 하든가 말로 설득하여 단념시키는 행위 등이다. 〈자유론〉은 직접보다는 간접 형태의 간섭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에 의한 직접의 강요가 아니라면, 사회는 어떠한 유형의 강요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도덕적인 견해와 삶의 방식 문제에 관해, 밀이 상정하고 있는 자유로운 사회 공동체는 오로지 토론과 설득의 다소 위압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밀은 토론과 설득이 개인의 도덕적인 자율성을 확보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실제로 말을 통한 간접적인 강요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말하는 것이 싸우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결과를 예상하고 어떻게 말을 하는 가를 살펴보아야 한다.”(Chambers, 1996, p. 7). 밀은 토론의 잠재적인 강요의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대화법을 강조하였다.

대화법에 근거한 탐구를 밀은 간접적인 형태의 간섭과 진리를 주입하는 형태의 강요를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으로 간주하였다. 대화법은 개인들이 군중들의 의견에서 벗어나면서, 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스스로 성찰하면서 결정할 수 있게 한다. 밀이 〈자서전〉에서 언급한 정신적

인 위기 이전에는, 소피스트였으나 정신적인 위기를 극복하면서 소크라테스가 되었다(Urbinati, 2013, p. 54). 정신적인 위기 이전에는 제레미 벤담과 아버지인 제임스 밀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들이 생각한 양적 공리주의를 타인들에게 강요하는 형식으로 집필하면서 런던 토론 사회(London Debating Society)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이 토론 사회에서는 최종적으로 누가 승자가 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였다. 승리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논리를 “백병전(lutte corps-à-corps)”⁵⁾(Mill, 1873/2010, 134쪽)과 같이 타인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⁶⁾

벤담과 제임스 밀에 의해 주도되었던 정치적 급진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진리이기 때문에 타인들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형식으로 담론을 펼쳤다. 이러한 담론은 타인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마치 자신들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밀은 경고하였다. 비록 진보 혹은 계몽이라는 대의명분을 갖고 행할지라도 밀은 이러한 담론 양식을 억압이라고 간주하였다. 밀은 어떠한 경우라도 진리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해당 의견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인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개인의 주체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대화법에서 찾고자 하였다. 개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유능한 판단자(competent judges)”⁷⁾(Mill, 1861/2008, 45쪽)가 되어야 한

5) 여기서 백병전은 다양한 의견 표현을 통해 합리적인 합의를 구함이 목적이 아니다. 자신의 의견이 진리이기 때문에 맹목적인 신념에 근거한 다름을 의미한다. 밀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 이데올로기로 전환됨을 우려하였다. 자신들의 힘의 우월성을 근거로, 자신의 의견에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옷을 입혀서, 누구든지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그릇된 신념이 형성된다(Mill, 1873/2010, 134쪽).

6) 밀은 누구의 의견이 우세하고 열등한지를 평가하는 런던 토론 사회에서의 폐해를 목격하면서 런던 토론 사회를 탈퇴하고 그로테 하우스(Grote's House)에 가입하였다. 그로테 하우스에서는 소크라테스의 대화법과 같이 승자를 결정함이 아니라 타인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의 논리적 근거를 비교함으로써 자신 논리의 결함을 찾아서 극복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Mill, 1866). 밀이 강조하고 있는 토론은 의견의 우월함을 결정함이 아니라 자신의 논리의 결함을 찾고자 함이다.

다. 개인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타인과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스스로 해당 주제를 탐구함이 매우 중요하다.

밀이 대화법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아버지인 제임스에게 영향을 받았다. 제임스는 아들인 밀에게 그리스 고전을 읽게 하였다. 자연스럽게 밀은 소크라테스를 접하였다. 다만 제임스와 존 스튜어트 밀의 대화법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밀은 아버지의 대화법에 대한 해석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아버지는 대화법을 이용하여 끊임 없이 상대방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주어진 생각에 정확한 해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간의 마음은 정확한 해답을 찾을 때까지 분석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대화법은 해당 의견이 진실인지 거짓인지가 증명이 될 때까지 의심을 요구한다. 일단 진리를 찾게 되면, 더 이상 비판적인 분석이 필요하지 않다(Bain, 1882, pp. 15-26). 해당 의견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에 대해서는 밀은 아버지와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대화법이 자신의 모순에 대해 스스로 성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의견의 모순을 지적하는 데 적합하다고 본 아버지의 입장을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비록 해당 의견의 모순을 지적하고 바로잡는데 대화법이 유용하지만, 상대방의 결점을 공격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은 상대방의 인식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밀은 간주하였다. 밀은 벤담과 제임스 밀을 비롯한 공리주의자들이 마치 그리스 시대의 소피스트들처럼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로 대화법을 이용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비난하였다. 공리주의자들은 대화법으로 상대방 의견들의 “실수와 결함(faults and defects)”(Bain, 1882, p. 81)들을 공격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난공불락으로 만드는 데 혈안이 되었다(p. 81).

결과적으로 공리주의자들은 대화법을 통해, 자신들과 다른 의견의 결점들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의견을 견고하게 하여, 자신들의 의견에 모순이 없다고 믿게 함으로써 독단적인 교리를 수립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점에 대해 밀은 대화법이 오용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밀은 아버지

의 대화법에 대한 견해의 근본적인 오류는 바로 지적 발전이 선형적으로 진행되면서 지적 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진리를 주입하는 것이라고 간주하였던 점이다(Clarke, 1962, p. 20; Mill, 1873/2010, 166-167쪽). 결국 밀은 양적 공리주의자들과 결별을 하면서 급진주의자들이 주도한 정치 개혁은 타인의 결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오류를 깨닫고 그 오류를 시정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바꿀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았다. “개인에게 타인의 의견을 주입하면 안 된다. 다만 그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해야 한다.” (밀이 1830년 3월 6일 G. D'Eichthal에게 보낸 편지에서).

2) 슬라이어마허와의 만남과 소크라테스 대화법

밀이 슬라이어마허(Schleiermacher)를 접하면서 대화법이 당시의 공리주의자들에 의해 오용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1829년에 런던 토론 사회를 탈퇴한 이후에 밀은 코노프 쉘월(Connop Thirlwall)의 <철학적인 박물관(Philosophical Museum, 1833)>책에서 슬라이어마허의 “철학자로서의 소크라테스의 가치에 관하여(On the Worth of Socrates as a Philosopher)”를 번역한 글을 접하면서 대화법의 진면모를 알게 되었다. 슬라이어마허의 글이 자신의 인식 세계에 다음과 같이 강한 인상을 주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당신은 슬라이어마허가 소크라테스에 대하여 쓴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수없이 읽었어요.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동시에 지식이 무엇이고, 지식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의 편협한 교육으로 인해 나의 사고가 경직되었고, 그 어떠한 진리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진리는 다각적으로(many-sided) 살펴봐야 합니다(밀이 T. Carlyle에게 1833년 10월 5일에 보낸 편지에서).

밀은 슬라이어마허의 글을 읽으면서 아버지에게서 배운 대화법의 부정적인 측면 이외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인식하였다. 밀에 있어서 소크라테스는 지식을 얻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한 도덕적인 철학자였다. 부정적인 면은 벤담과 제임스 밀이 이해하였듯이 상대방 의견의 잘못을 드러내고자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논리의 결함을 깨닫게 하고, 긍정적인 면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단어들의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소크라테스는 단지 타인들의 실수를 지적하고자 함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의 전제조건”(Schleiermacher, 1833, pp. cxxxiii - cxlv)을 입증하게 하였다. 슬라이어마허는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아는가와 더불어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전제들에 대해 질문을 함으로써, 자신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지식을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명확한 의미로 알게 함이 대화법의 목적이라고 파악하였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의 생각에 내재하고 있는 전제조건들의 모순을 지적하고, 왜 모순이 나타나는지를 서로 탐구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으며, 내적인 일관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진술을 구성하고자 하였다(Schleiermacher, 1833, pp. cxlviii-cxlix). 밀은 대화법을 비판적인 성찰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방법으로 보았다. 가능한 모든 반대 의견을 고려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엄격하게 검증하는 작업이다. 대화법은 개인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대화법에 근거한 토론은 능동적인 지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호된 시련의 장이다.

3. 밀이 해석한 소크라테스 대화법의 특징

1) 소크라테스 문답법((elenchus)에 대한 밀의 해석

밀은 <자유론>에서 대화법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지만 상세하게 다루고 있

지 않았고 <그로테의 플라톤(Grote's Plato, 1866)>에서 자신이 이해한 대화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대화법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첫째, 문답법(elenchus)이라는 부정적인 면, 둘째, 일반적인 용어로 분류된 사물 혹은 대상 간의 공통의 특성을 찾는 긍정적인 작업이 있다.⁷⁾ 소크라테스 문답법은 상대방 의견의 오류를 지적함으로써 자신의 무지를 스스로 인식하게 하는 부정적인 토론이다. 플라톤의 초기 대화편을 보면, 소크라테스는 대화 상대자에게 대화의 주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라고 하면서, 상대자의 의견이 명확한지를 파악하는 질문을 던진다. 문답법은 단어와 진술이 본래 의미하였던 개인의 경험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도움이 되는 사례가 바로 <라케스>에서의 라케스와 소크라테스의 대화다.

밀이 해석한 플라톤 대화편인 <라케스(Laches)>를 보면, 아테네의 장군들인 라케스와 니시아스가 소년들에게 갑옷을 입혀야 하는 문제를 갖고 논쟁을 벌이다가 소크라테스에게 찾아가 질문을 한다. 라케스는 소크라테스가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요? 라고 질문을 하자 이에 대해 라케스는 용기를 갖추기 위해서 갑옷을 입히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니시아스는 갑옷을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소크라테스는 라케스에게 용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라케스는 대답하기를, 누군가가 대오를 지키면서 적들을 막기 위해 도망치지 않는다면 그는 용감한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재차 묻는다. 견디는 것보다 도망가는 것이 용기가 있을 때도 있지 않은지요? 때로는 견디는 것이 어리석은 행동이 아닌지요? 라고 묻는다.

뒤이은 대화에서 장갑 보병으로 전쟁할 때, 라케스의 정의가 어떠한

7) 소크라테스 대화법의 부정적 그리고 긍정적인 면은 밀의 용어를 그대로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밀은 <자유론>에서 소크라테스가 상대방의 의견의 모순을 드러내고자 하는 부정적인 변증법을 사용하였으며(Mill, 1859/2013, 89쪽), 앞에서의 슬라이어마허에 대한 밀의 논의에서 칼라일에게 보낸 편지에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한다. 이 부분은 라케스의 용기에 대한 정의가 보병 전투 분야에 국한되어 있다는 비판이다. 스키티아인 전차 부대는 추격하면서 싸우는 것 못지않게 도망치면서 싸우기도 한다고 소크라테스가 말하자, 라케스는 그렇다면 용기는 지혜롭게 버티는 힘이라고 대답한다. 이에, 소크라테스는 용기와 지혜가 연결되는 덕목인지요? 지혜롭지 못한 목표를 추구할 때 보여 주는 용기를 찬양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니시아스가 말하면서, 전쟁을 비롯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용기입니다. 니시아스의 답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미래에 대한 완벽한 지식이 없어도 용기를 내는 것이 가능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하니 두 장군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라케스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가능한 용기에 대한 정의를 전쟁의 모든 상황에 적용하고자 하였다(Mill, 1828, pp. 221-223).

특정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한 지식은 생명이 없는 독단이 된다. 이렇게 문답법은 단어들이 적용되는 조건들을 명료하게 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가 다른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면서, 궁극적으로 대화 상대자의 답변에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한다. 문답법은 대화 상대자의 견해를 반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화 상대자가 자신의 '주장의 근거'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를 인식하게 함이 목적이다. 그럼으로써 대화 상대자가 해당 문제를 더욱 고민하고 연구하게 한다. 밀은 소크라테스의 반박을 "삶의 예술"(Mill, 1866, p. 365), 즉 충분한 논리적 근거가 없을 때는 믿음을 유보하는 예술이라고 서술하였다. 문답법은 사람들에게 가능한 모든 반박에 대해 준비를 철저하게 할 것을 요구한다(p. 365). 문답법은 해당 주제에 대한 의견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간과될 수 있는 절차를 드러냄으로써 추론 과정에 변화를 주는 것에 의미가 있다. 추상적인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험에 근거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답법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의 추상성을 지양하고 명확한 의미를 찾고자 한다.

소크라테스는 대화 상대자가 자신 의견의 논리적인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수정하게 하였다. 문답법은 대화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협조하여 의견의 명확성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화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자신들의 이성을 혼미하게 할 수 있는 방해물들을 걷어냄으로써, 자신들의 무지를 인정한다. 소크라테스는 상대방이 진실이 아닌 믿음을 지지하는 것보다 무지함을 인정함이 다행스럽다고 생각했다. 잘못된 믿음을 진리라고 확신하게 되면 더 이상의 탐구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궁지에 몰린 의심(aporia) 상태가 되면, 대화 상대자는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포기하고, 자신의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한다.

2) 대화법의 긍정적인 측면

대화법의 긍정적인 측면은 앞에서 논의한 진술의 일관성을 강조하기보다,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생각의 상투적인 개념이 본래 무엇을 의미하고자 하였고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해당 개념이 살아있는 진리가 아니라 죽어있는 독단이 되었는지를 역으로 탐색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서 해체(decomposition)와 재결합(recomposition)의 두 단계 방법(two-fold process)(Mill, 1834, p. 134)을 이용하였다. 첫 번째의 해체는 해당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개념들이 무엇이고 각 하위 개념들의 의미를 진단하면서 원래 개념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Mill, 1834, p. 134). 밀은 그릇된 의견이 왜 나타났는지를 대화법의 해체와 재결합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지적인 능력의 한계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바라는 결과에 보탬이 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 관심을 두지 않는 경

향이 있다(Mill, 1843b, p. 76). 이를 밀은 “희망에 의한 편향(biased by wishes)”(Mill, 1843b, p. 76)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화법의 긍정적인 방법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밀은 역설하고 있다. <논리학 체계>에서 밀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독단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해당 의견을 이성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기준을 밀은 추구하였다.

밀은 소크라테스 대화법이 일반인들이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한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긍정적인 면(Mill, 1874, p. 387)이라고 간주하였다. 대개 단어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원래 의미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의미를 갖게 되며, 여러 감정과 섞이면서 본래 의미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Mill, 1874, p. 387). 결과적으로, 일반적으로 명료하지 않고 어렵듯이 암시하는 개념들을 정교하게 하면서, 그러한 개념이 들어간 “일상적인 격언과 의견(the common maxims and opinions)”(Mill, 1874, p. 387)들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일상적인 격언들이 종종 사람들의 도덕성을 잘못 인도하는 경우가 있다. 추상적인 개념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는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밀이 T. Smith에게 1872년 10월 4일에 보낸 편지에서). ‘자연스럽다’라는 말을 예로 들 수 있다. 밀의 논의에 의하면, 과연 ‘자연스럽다’라는 말은 해당 진술이 “선이라고 함을 강하게 주장(a strong argument for its goodness)”(Mill, 1874, p. 390)하면서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힘을 갖게 한다. ‘자연스럽다’라는 말이 일종의 규범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남자와 여자의 능력이 자연적으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한다(Mill, 1869c/2006). 과연 그러한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밀은 <여성의 종속>에서 논의하고 있다.

플리톤은 많은 대화편을 저술하였는데, 만약 자연의 의미를 탐구하

였다면 아마도 후손들이 자연의 개념을 오용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Mill, 1874, p. 387). 이에 밀은 <종교론(Three Essays on Religion)>에서 자연의 의미에 대해 대화법을 이용하여 명확한 개념을 찾고자 하였다. 모든 질문은 다음의 두 가지 형태로 요약된다. 그것은 무엇인가(what is) 와 그것은 무엇이어야 하는가(what ought to be) 중의 하나다. 무엇인가의 질문은 과학 영역, 무엇이어야 하는가의 질문은 예술 영역인 사회와 인간사에 관한 문제 그리고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Mill, 1874, p. 390).⁸⁾ 두 종류의 질문을 근거로 하여 과연 '자연스럽다'라는 말이 그것은 무엇인가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의 규칙 혹은 기준을 포함하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밀은 자연이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의 모호성을 해체함으로써 과연 자연이 인간이 준수해야 할 도덕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탐구하였다.

해체의 첫 번째 절차로서, 모호한 용어를 사용할 때는 우선 그 용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자연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사용되고 있는 “추상적 의미를 경험적인 차원”(Mill, 1874, p. 387)으로 해체해야 한다. 자연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밀은 “특정한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속성들과 영향력의 집합체”(Mill, 1874, p. 388)라고 보았다. 따라서 자연은 “모든 현상과 해당 현상들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의 집합체”다(Mill, 1874, p. 388). 자연은 인간 행위의 특징인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행위자가 없이 발생하는 현상”(Mill, 1874, p. 389)이다. 그렇다면 대화법의 두 번째 단계로서, 스스로 움직이는 자연에 인간에게 도덕성을 요구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를 살

8) 예술(art)은 사람이 실천 행위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이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일련의 규칙들에 영향을 받는 영역이다. 예술에서는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제시하고 그 목적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규범이 필요하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규범을 제시하고, 과학에게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실천 방안이 무엇인지를 의뢰한다. 과학은 자신의 연구 규칙에 근거하여 다양한 방법 중에서 효율성이 제일 높다고 하는 방안을 예술 영역에게 제시한다(Mill, 1843b, p. 228).

필 필요가 있다.

밀은 자연의 질서를 논의하면서 과연 자연의 질서가 “인간의 도덕 교육과 가르침(moral instruction and guidance)”(Mill, 1874, p. 401)을 위해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인간은 자연에 순응하여 행동해야 한다는 말은 자연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Mill, 1874, p. 390). 구체적으로 “자연적 정의(natural justice)”라는 일반적인 표현법 때문에 마치 정의라는 덕목이 자연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자연적 정의는 전적으로 인위적으로 형성되었다. 정의라는 용어는 인간들이 법을 만들면서 나타났다. 정의(justice)를 의미하는 *justus and justitia* 단어들은 법을 지칭하는 *jus*에서 비롯되었다(Mill, 1874, p. 405). 자연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창조주 섭리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행동에 적용한다면, 자연의 세계에서 관찰되는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것을 자연의 질서 혹은 창조주의 섭리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정의를 규정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Mill, 1874, p. 407). 이러한 분석을 통해 밀은 자연이라는 용어에는 인간이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규범적 의미는 없다(Mill, 1874, p. 410)고 밝히고 있다. 단지 자연을 신의 영역으로 치환하면서 마치 자연의 질서를 알고자 혹은 거스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불경하다는 죄를 씌워 처단하고자 했던 권력가들의 통치 행위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Mill, 1874, p. 394)라고 주장한다. 밀의 자연에 대한 분석의 타당성을 논의함은 본 논문의 목적이 아니다. 다만, 자연스러우므로 어떠한 질문도 필요하지 않다는 말에 항상 의문을 던져야 한다는 밀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⁹⁾

9) 자연스럽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밀의 주장은 한국의 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삼종지도(三從之道), 부창부수(夫唱婦隨), 남존여비(男尊女卑), 칠거지악(七去之惡) 등이 여성의 지위를 상징한다. 우리가 여성의 지위를 고려할 때, 기정의

이러한 개념의 해체 작업은 바로 개념의 외연과 내포 의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반적인 명칭(general names)”(Mill, 1843a, p. 137, 241) 들은 외연의 의미와 내포된/함축된 의미가 있다. 해당 단어의 내포된 의미는 해당 단어가 의미하는 사물 혹은 대상의 속성들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사람이라는 단어의 외연적인 의미는 철수, 영희, 소크라테스와 같이 많은 수의 개인이다. 각 개인은 공통의 속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사람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명칭에 의해 다른 개체들과 구별된다. 공통의 속성에 근거하여, 일반적인 명칭인 사람은 ‘합리성이 있고’ 그리고 ‘두 발로 다닌다.’ 와 같은 공통의 속성들이 있다. 이렇게 사람이라는 단어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라는 외연적 의미가 있으며, 그러한 개인들 공통 속성의 내포적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

사람들은 해당 단어를 새로운 사례와 이전 사례의 유사성을 고려하지도 않고 새로운 사례에 적용하곤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법에 자연을 붙여 자연법이라는 단어를 만든다. 대상의 의미가 일시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처음에는 하나의 사물에 적용되고 이후에 다른 것으로 옮겨가면서 확장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에 적용되었던 대상과 유사한 대상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된다. 때로는 처음에 적용하였던 대상과 공통점이 없는 대상들에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 처음에는 해당 사물의 특수한 특징을 언급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단어가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사물들에 적용되면서 구체적인 특징을 의미하였던 단어가 공통의 특성이 없는 혹은 추상적인 의미를 가리키는 단어가 된다. 이는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불명확하게 만든다. 다양한 사람들이 원래 단어에 다양한 내포적 의미를 첨가하다 보니 커뮤니케이션의 불안정이 나타난다(Mill,

사실이라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개념들의 ‘객관성’을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여성의 지위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한국의 결혼제도가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에서 친영제(親迎制)로 바뀌면서 나타났음을 보면 과연 여자는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자연적인가? 혹은 우연에 의해 나타났는가?(조은숙, 2001).

1843b, pp. 177-178).¹⁰⁾

해당 단어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현재 한국에서 한반도 문제를 언급할 때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평화다. 평화의 외연적 의미는 '전쟁, 분쟁 또는 모든 갈등이 없이 평온함. 또는 그런 상태'다. 비록 평화가 갈등이 없는 상태라는 외연적 의미가 있지만, 각자가 자신 경험과 가치관에 따라 유사한 혹은 다른 의미의 한반도에서의 평화의 내포적 의미를 상정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과연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때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언급할 때, 정확한 의미를 상정하지 않고, 마치 누구나 같은 의미로 바라보고 있다고 믿다 보니 막연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각자의 해석이 다른 관계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밀은 “마음의 법칙(laws of mind)”(Mill, 1843b, p. 33)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하나의 단어가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에 의해 여러 가지의 내포적 의미를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해당 단어를 사용할 때, 전체 내포적 의미 중에 일부분만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자신만의 경험에 근거하여 해당 단어의 의미를 상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본인의 생각을 가능한 효율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현상들이 반복되면, 결국에는 본래의 구체적인 의미는 사라지고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의미만이 생존한다(Mill, 1843b, pp. 33-34).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밀은 대화법을

10) 이 부분의 논의는 Uwe Pörksen의 논의와 맥을 같이 한다. Uwe Pörksen은 일상생활에서 단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되고 나아가 다른 단어와 결합하면서 의미의 모호함이 나타난다고 하면서 이러한 단어들을 플라스틱 단어라 명명하였다. 예를 들면, 발전적인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한 한다고 하자. 과연 발전적인 생각이 무엇인지에 관한 명료한 의미를 대화 참가자들이 공유하고 있는지가 의문시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발전적인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말을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은 무척 당황하고 자신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다. 이러한 면들이 바로 플라스틱 단어의 포성이다(Pörksen, 1995).

통해 해당 단어를 가능한 한 모든 내포적 의미로 해체하여, 해체된 내포적 의미들을 정밀하게 살펴보고, 해당 맥락에서는 어느 내포적 의미가 타당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마음의 법칙에 의하면 사람들은 해당 용어를 사용할 때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과 경험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해당 용어의 내포적 의미에 다른 의미를 덧붙인다. 일반적인 단어들이 특정한 상황에서 사용될 때, 사용되는 타당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지 않고 다양한 사례에 적합하지 않게 사용된다면 바로 죽은 독단이 나타난다. 라케스의 예에서 관찰하였듯이, 대화 참가자의 경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대화 참가자가 자신의 견해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조심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 적용 범위의 명료화를 위해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명칭들의 내포적 의미들의 제한은 사용하는 단어의 명료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대화법은 절대적인 진리를 확립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의 견해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신뢰성을 담보하고자 한다.

밀은 대화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대화법은 해당 주제에 관한 의견들에 대해 부정형의 질문으로 시작된다. 어떠한 주제에 대해 그 본질은 알지 못하면서 상투적인 지식만을 받아들이고 마치 무엇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함이 첫 번째 목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주제와 주제에 대한 의견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면서 상대방의 지적인 능력을 도모하고, 더욱 확실한 믿음을 갖도록 함이 목적이다(Mill, 1859/2013, 89쪽). 이를 위해 다른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토론함으로써, “자신의 상태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더불어 강렬한 내부의 자극을 불러일으킴으로써,”(Mill, 1866, p. 364)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면서 생각을 명료하게 함이 목적이었다. 이를 통해 자신 이 제시하는 의견의 논리적 근거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자신의 지적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밀은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이 교조적인 믿음을 아무런 비판과 성찰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경계

한 점을 찬양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밀이 해석한 대화법의 부정/긍정의 특징이 밀의 인식론 논의와 어떠한 관계가 있고, 밀이 추구하고 있는 인식의 자유와 인식의 주체를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해 다음 장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4. 토론과 인식의 자유를 위한 밀의 인식론 논의와 대화법의 만남

1)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토론의 자유와 인식의 자유

(1) 인간 인식의 한계

〈자유론〉 2장에서 밀은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으로서 서로 다른 의견 간의 토론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밀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표현의 자유가 떠오른다. 너무 익숙함은 가끔 해당 대상의 다른 모습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서는 밀의 표현의 자유보다는 토론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밀이 토론을 강조하는 근거는 인식론과 지식에 대한 밀의 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사람은 감각이라는 매개를 통해 자신의 환경을 이해하고 지식을 만든다. 만약 우리가 세상을 어떠한 매개도 없이 파악한다고 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세상에 대한 지식과 세상은 일대일로 대응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의 지식에는 증거가 필요 없다(Mill, 1869a, p. 126). 그러나 우리는 “마음의 내부 빛(the mind’s inward light)” 이 없이는 어떠한 지식도 얻지 못한다(Mill, 1840, p. 199). 마음의 내부 빛이 무엇인가? 밀은 감각(Mill, 1843a, p. 485)과 개념(Mill, 1843a, p. 24)을 언급하고 있다.

세상과의 상호작용이 감각적이라고 함은 인간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실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새가 우는 소리(증

거 1)만을 듣고 가까운 거리에 새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자. 과연 그 사람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만약 다른 사람이 새 소리를 내는 전자 장치(증거 2)를 설치하였다는 것을 안다면, 과연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비록 그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위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증거는 단순한 새 소리뿐이라는 증거밖에 없다. 따라서 어떠한 주장을 할 때는 자신의 판단을 지지하지 않을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증거 1이 특정한 결론을 내리는데 충분하지 않으며, 증거 1과 증거 2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증거 2는 증거 1에 의한 결론과 반대가 되는 결론을 초래한다(Macleod, 2021, p. 3).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증거를 고려해야 하며, 동일 현상에 대한 다른 주장들이 제시하고 있는 또 다른 증거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른 의견과 열띤 논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허점이 지적되지 않은 의견과 아예 논쟁의 기회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의견이 진리라고 간주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Mill, 1859/2013, 48-49쪽).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증거를 고려해야 하며, 동일 현상에 대해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제시하고 있는 또 다른 증거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감각적일 뿐만 아니라, 둘째, 해석을 통해 세상과 관계를 맺는다. 사람들은 일반적인 명칭(*general names*)의 개념을 적용하여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대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하나의 주장만이 가능하지 않고 다양한 주장들이 나타날 수 있다(Mill, 1869b, p. 149). 나아가 대상이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다고 간주함은 대상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있는 그대로 설명하기보다는 다른 대상들과의 “인위적인 관련성 (*artificial associations*)”(Mill, 1869b, p. 149)에 의해서 가능하다. 대상이 특정한 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다른 대상들과의 비교를 통해 두 대상이 유사한지 혹은 다른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근거하여

결정된다(p. 149). 따라서 대상 간의 유사성은 대상들 자체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이 아니라, 감각과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사람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지식이 바로 인간의 감각과 해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감각을 통해 들어 온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자신의 고유한 인식의 틀에 의해 해석한다. 사실(fact)들이 자신의 의미를 스스로 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사람들의 논평이 있어야 사실들이 지닌 의미가 드러난다(Mill, 1859/2013, 50쪽). 자신 경험의 해석에 대한 타인의 논평을 허락하지 않음은 자신의 해석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자신 인식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앞에서 논의한 벤담과 제임스 밀이 견지하였던 자신들의 의견이 옳으니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교조주의에 불과하다. 이에 밀은 교조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토론 자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2) 의견의 상호주관성을 위한 토론의 자유

사람은 오로지 경험에 대한 해석을 통해 세상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해석이 타당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해석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데, 사람이 심리적으로/주관적으로 확신을 한다는 것은 판단의 근거가 되는 외부 잣대를 부정하는 것이다(밀이 T. Gomperz에게 1854년 8월 19일에 보낸 편지에서). 그렇다면 경험에 대한 해석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사람은 해석을 피할 수 없는 존재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사람의 해석과 비교함은 주관적인 확신을 지양할 수 있는 기제다. 자신의 해석과 타인의 해석이 수렴한다면 본인의 해석이 상호주관적으로 인정되었음을 의미한다. 타인과의 토론이 자신의 의견을 주관적으로 확신하는 함정에 빠지는 것을 구할 수 있다. 결국 토론이 없다면, 우리는 인식의 가두리¹¹⁾ 안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다. 상대방이 옳지 못하다고 확신하여 그 의견을 듣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해석에 대한

확신이 절대적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Mill, 1859/2013, 45쪽). 이렇게 밀은 인간의 인식과 의견의 주관성을 상호주관성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토론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사람들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믿음들은 세상 앞에서 철저하게 검증받는 것 이외에는 자신의 믿음이 상호주관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다른 안전장치가 없다. 만약에 검증의 기회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는 물론이고, 기회가 허용되어 약점이 드러나지 않았어도, 현재 인간의 이성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진리라고 확실할 수 없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에게는 이 정도가 가능한 확실성이며, 토론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Mill, 1859/2013, 52쪽). 사람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인지할 수 있다면, 자신의 해석과 다른 해석이 가능하지 않으며 주관적인 해석은 상호주관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토론의 자유가 의미가 없다. 그러하던 토론 사회에서 관찰되었던 누가 승자인가를 결정하는 토론이 아니라 상호 도움을 줄 수 있는 토론의 질서를 밀은 찾고자 하였다.

밀이 토론을 강조한 이유는 사람이 자신의 실수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밀의 논의와 깊은 관계가 있다. 사람은 인식의 한계로 인해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fallible being)”다(Mill, 1859/2013, 52쪽). 따라서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밀은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더불어 자신의 심리에 근거한 주관적인 확신의 상호주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자신의 의견이 진실이기 때문에 남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남의 의견과 대조하지 않음은 바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음을 확신하는 것이다. 유한한 존재인 우리

11) 인식의 가두리는 사람들 인식의 한계를 가두리 양식장의 물고기와 유사함을 강조하고자 연구자가 설정한 은유다. 물고기들은 자신이 갇혀있는 가두리 양식장이 마치 모든 세계라고 간주하고 자유롭게 유평하고 있다. 사람들도 자신의 인식 세계가 한정되어 있지 않고, 전체인 것처럼 간주함으로써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주장한다.

에게는 “절대적으로 확실한(absolute certainty)” 것은 없다. 다른 사람들과의 토론을 통한 “충분한 확신(sufficient assurance)” 만이 있다 (Mill, 1859/2013, 48쪽). 여기에서 우리는 밀이 사용한 certainty와 assurance의 의미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확신(assurance)은 ‘내가 확신한다.’는 말에서처럼 개인의 주관적인 상태, 심리적인 차원에서의 확신을 의미한다. 반면에, ‘확실성(certainty)’이란 “어떠한 사실이 확실하다.”고 말하는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객관성에 근거한 확신이다.¹²⁾ 밀은 주관적인 확신이 상호주관적인 확실로 전환하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밀은 〈자유론〉에서 수학과 같은 영역에서는 영역의 특성상, 하나의 답 이외에 대안을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정치, 도덕, 종교, 그리고 삶에 관한 문제 등과 같은 영역에서는 상반된 이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Mill, 1859/2013, 75쪽). 그러나 자유로운 토론만이 인식의 주체를 위해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이 아니다. 런던 토론 사회에서의 밀의 경험을 고려하면, 비록 외관상으로는 자유로운 토론일지라도, 강요가 잠재하고 있음을 밀은 목격하였다. 타인의 강요가 존재하지 않으면서, 개인이 주체적으로 해당 대상/주체에 대해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는 토론의 합리적인 절차를 밀은 추구하였다.

(3) 대화법과 인식의 주체를 위한 이성적인 확신

밀은 인식의 주체성을 위해 “이성적인 확신(rational assurance)(Mill, 1859/2013, 49쪽)”을 강조한다. 의견의 이성적인 확신을 위해서 이성

12) 확실성과 확신의 구분은 아리스토텔레스의 〈Rhetoric〉에서 찾을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확실성의 정도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을 확실한 진리(certain truths)와 임시적이면서 가능성 있는 질문(probable/contingent questions)으로 구별하였다. 확실한 진리는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다른 대안을 고려할 수 없다. 그러나 임시적이고 가능성이 있는 질문은 확실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이 있는 설명이 가능하다. 인간의 삶, 도덕, 정치, 그리고 종교에 관련된 문제들이 이 영역에 해당한다(Aristotle, 1932/B.C. 350, p. 11).

근거한 합리적인 절차를 밟은 대화법에서 찾았다. 믿은 사람이 어떠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것보다, 그 지식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에 대한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과정으로서 자유롭고 평등한 토론이 없다면, 우리는 가능한 모든 증거들을 고려하였는지, 우리의 해석에 대한 증거가 타당한지 등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확신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의견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의견들을 들어보고 비교하면서 다양한 시각에서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의견들을 살펴보는 것 이외에 인간 지성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방법이 없다(Mill, 1859/2013, 50-51쪽). 이러한 토론은 자신 의견의 논리적 근거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자유로운 토론이 없다면, 의견의 근거뿐만 아니라 자신 의견의 정확한 의미도 알지 못하면서 편견을 조장한다(Mill, 1859/2013, 74쪽).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소크라테스와 같이, 믿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판단과 의견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믿은 ‘내가 누구를 믿는 이유는 그/그녀가 옳다고 느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옳고/그르고를 따지는 것 보다, ‘당신이 누구를 옹호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할 것이다. 그 사람은 믿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반박에 대해 대화법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자신 의견의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타인과의 대화법에 근거한 변증법적 토론을 통해 자신이 누구를 왜 믿는지에 대한 이성적인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 믿은 대화법이 토론참가자들이 인식의 가두리에 근거하여, 옳다고 믿는 의견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하게 하고, 자신 인식의 문제점을 깨닫게 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앞의 대화법에서 논의하였듯이, 대화법은 상대방 의견의 진위를 따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견의 진위를 사람은 완벽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진위는 스스로 드러난다. 만약 상대방의 의견이 그르다고 판단하는 것은 마치 유일한 존재인 자신이 항상 실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화법은 상대방 의견의 일관성과 명료성을 요구한다. 밀은 대화법의 부정/긍정적인 특징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 의견의 이성적인 확신을 어떻게 제고시킬 수 있는지를 위해 노력한다고 기대하였다. 결과적으로 대화법을 통해 사람은 자신의 지적인 능력을 제고하고 타인의 암묵적인 강요가 없는 인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2) 의견과 지식의 차이에 대한 밀의 논의

밀의 의견과 지식의 구분에 대한 논의는 대화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밀은 지식(knowledge)을 이성에 근거하여 자신의 믿음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간주하고 있다. “의견의 근거(grounds for one’s own opinion)”(Mill, 1859/2013, 74쪽)를 타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믿음은 지식이라고 일컬을 수 없다. 이 경우에는 또 하나의 미신을 만드는 것이면서, 진리를 가장하는 것에 불과하다(Mill, 1859/2013, 74쪽). 밀은 자신의 믿음을 설명하는 능력 뿐만 아니라 설명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의견들이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자신의 믿음만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내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의 논리적 근거를 반박해야 한다(Mill, 1859/2013, 76쪽). 자신의 믿음에 대한 전제조건을 타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다른 의견이 진리가 될 수 없는지를 증명할 때까지는 자신 의견들의 논리적인 근거를 알지 못한다(Mill, 1859/2013, 75-76쪽). 자신과 다른 의견들을 듣고, 이해하고 그런 의견들에 허점이 있음을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이 진실이라고 정당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개인의 경험과 해석은 필연적으로 한계가 있다. 비록 현명하고 지력이 풍부한 사람들은 실수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나 토론이 없다면,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 될 수밖에 없게 되면서 “인식론적으로 자만심(epistemological conceit)”을 가질 수 있

다(밀이 G. D'Eichthal에게 1829년 11월 7일에 보낸 편지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밀은 자유롭고 평등한 토론으로서 대화법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도덕적인 삶에서의 최고는 진실을 공고하게 함이 아니고 사람들이 무엇을 믿는지 간에 비판적인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밀에 의하면, 소크라테스는 지식이 무엇인가 보다는 지식을 어떻게 추구하는가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보다, 지식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에 관심을 두었다. 밀에 있어서 지식과 의견의 차이는 지식이 이성을 포함하고 있고 그래서 옳고, 반면에 의견은 믿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르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의견의 문제점은 타인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 나타난다. 따라서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모순에 빠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해당 믿음 혹은 의견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가 없이, 단지 내가 믿는 사람이라서 그/그녀가 믿고/말하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 의견과 지식의 차이는 “틀렸고” 그리고 “옳고” 간의 단순한 차이가 아니다. 밀은 공개적으로 정당화 과정을 거친 의견들과 어떠한 검증을 받지 않은 의견들을 구별하고 있다.

정당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은 자신의 지적인 능력을 제고시키면서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의견에 대해 논리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이성적인 확신을 확보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밀은 지식을 정형화된 실체가 아니라 개인의 능력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지식은 오로지 사람 내부에서 나타난다. 외부에서 오는 것은 질문만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권위다”¹³⁾ (Mill, 1832, pp. 283-284). 자신이 스스로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타

13) Knowledge comes only from within; all that comes from without is but questioning, or else it is mere authority.

인의 의견을 단순하게 추종하는 것을 경고하면서, 모든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사건 혹은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이성애 근거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음을 밀은 강조하고 있다. 사람은 실수하는 유한한 존재다. 인간이 아는 진리는 반쪽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지식도 허점이 많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성적인 확신을 확보했다고 해서 완전한 지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 밀은 끊임없이 자신의 의견 혹은 지식을 반대하는 것들이 나타나면, 공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변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Mill, 1859/2013, 90쪽). 따라서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의견을 반대하는 모든 의견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그녀가 알고 있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편견이다. 뉴턴의 이론이 어떠한 질문도 허락하지 않고 검증의 절차를 받지 않았다면, 현재 우리는 뉴턴의 이론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Mill, 1859/2013, 51쪽).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이러한 의견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없거나 혹은 제대로 해당 문제를 파악하지 않고 좋다/싫다 등의 의견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밀은 대화법이 이와 같은 사람들의 의견을 부정하면서 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최상의 방법이라 생각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의견의 의미와 논리적 근거를 명확하게 알게 된다(Mill, 1859/2013, 89쪽). 소크라테스는 지식을 “참이라고 정당화된 믿음(justified true belief)”(Judson, 2011, p. 164)이라고 정의하였다. 개인의 단순한 의견(doxa)이 타인들과의 자유로운 대화의 절차를 거치면서 지식이 된다고 보았다(Judson, 2011, pp. 164-165). 어떠한 의견도 반대 의견들과 열린 토론에서 검증되지 않으면 지식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주장이 바로 밀의 의견의 표현과 토론 자유에 대한 논의의 핵심이다. 밀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법 논리에 근거한 변증법적 토론을 거치지 않은 의견을 마치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인의 인식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간주하였다. 밀에 있어서 의견과 지식의 차이는 내용의 차이가 아니라 추론 방법의 차

이다. 더불어,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 남들에게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는 이성애 근거한 추론 능력이 중요하다.

5. 결론: 인식의 주체로서의 개인과 토론의 질서 확립

밀은 “인류의 사고방식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인류에게는 그 어떠한 위대한 발전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Mill, 1873/2010, 242쪽)라고 <자서전>에서 서술하고 있다. 밀이 언급한 사고방식 구조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밀과 소크라테스가 자신들의 시대에 만연하고 있는 사고방식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타인의 의견을 무조건 추종하고 타인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면서 자신의 의견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행위는 자신의 인식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다. 나아가 타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함은 타인의 인식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이를 지양하기 위해 밀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중요하게 간주하는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개인 인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비교/대조하여 자신 의견의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정 주제 혹은 대상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을 남들과의 토론을 통해 상호주관성을 제고함이 중요하다. 상호주관성이 자신의 의견을 정당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밀은 비록 토론의 이름으로 진행되지만, 토론에 잠재되어 있는 횡포성을 우려하였다. 따라서 상호주관성을 위한 타인과의 토론이 인식의 주체를 보장하지 않는다. 인식의 주체를 위해서는 토론의 질서가 필요하다. 이를 밀은 대화법에서 찾고자 하였다.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이 남들과의 비교를 거치면서 이성적으로 확신을 할 수 있는 정당화된 의견(justified opinion)을 확보하는 데 노력

해야 한다고 밀은 강조하고 있다. 런던 토론 사회에서 목격하였던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는 토론이 아니라 자신 생각 혹은 의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면서 인식을 주체성을 담보하는 대화법을 통해 합리적인 토론의 절차를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밀은 개인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의 추론의 절차를 강조하였다.

밀은 관습 혹은 관례가 자연스러우므로 영원한 진리라고 사람들이 간주하는 현상을 경고하였다. 소크라테스와 같이 독단주의의 병폐를 근절하고자 하였다. 조상들이 살아왔던 방식과 사람들의 생각을 어떠한 비판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동적인 자세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신이 만든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지적인 발전을 스스로 방해한다. 밀에 있어서 대화법은 〈자유론〉에서 밝혔듯이, 현재 우리가 진리라고 간주하는 진술들을 끊임없이 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밀은 관습적이고 관례로 전승되어 온 모든 믿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밀은 벤담과 아버지 제임스 밀이 신봉하였던 기계적인 사고를 부정하면서 새로운 도덕 가치관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벤담과 제임스 밀은 당시의 기계적인 인식론에 근거하여 인간의 본성은 외부 환경에 의해 지배 받는다고 하면서 인간의 내면적인 모습(internal culture)의 중요성에 관해 관심을 두지 않음을 밀은 경고한다. 인간은 자신의 성격이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인간이 주체적으로 그러한 영향을 선택하고 저항하면서 자신의 성격과 지적 능력을 끊임없이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밀은 진리 추구도 중요하지만, 진리에 이르는 과정으로서 대화법과 같은 토론의 자유가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개인이 진리를 혹은 진리가 아닌 것을 믿고 있는지 보다, 자신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알게 되었는가에 대한 과정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이 진리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 스스로 진리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지적인 권위를 갖추어야 한다. 자

신이 스스로 알아야 한다(Mill, 1832, p. 286). 밀이 의미하는 ‘천재’는 “알려지지 않은 진리를 발견”(Mill, 1832, p. 285)한 사람이 아니라 “생각의 능력 자체”(Mill, 1832, p. 285)이다. 비록 사람마다 생각의 능력에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이러한 능력을 계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생각의 능력을 훈련하면서 스스로 알고자 하는 과정에서 지적인 권위를 갖춘 행위자, 즉 유능한 판단자로서의 개인이 가능하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 낸 지식을 단순히 암기하고 따라 하는 “신뢰에 근거한 믿음”(Mill, 1832, p. 282)은 개인의 지력을 저해한다. 생각하는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지금까지 아무도 발견하지 않은 진리를 찾아내고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해당 진리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Mill, 1832, p. 282)가 중요하다고 밀은 강조한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알게 되었다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개인이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바로 “이 생각은 바로 나의 생각이며, 내가 스스로 나에게 질문을 하면서 알았기 때문에 입증할 수 있다.”(Mill, 1832, p. 282). 사회 감정이 이제는 더 이상 독립적인 사고를 비난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에 관하여 충분한 생각도 없이(half-thinker)(Mill, 1832, p. 289)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자신의 의견과 대조되는 생각들을 충분히 살피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생각만이 옳다고 하는 자만심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많은 토론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해당 주제에 대해 내로라하는 사람들이 토론자로 나와 자신들의 생각을 거침없이 피력하고 있다. 때로는 격양된, 때로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를 종종 목격한다. 그러다 보니, 연구자는 종종 토론 프로그램의 목적에 대해 의심하게 된다. 로마에서와 같이 검투사들에게 승부의 장을 마련하여 참가자들이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이 양쪽 의견들을 듣고, 토론자들 의견의 논리적인 문제를 인지하면서 스

스로 판단하게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밀이 의견의 표현 자유와 대화법에 근거한 토론의 자유를 강조한 이유는 타인의 결점을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개인 인식의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 논의는 밀의 개별성 논의와 맥을 같이 한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인생의 목표를 선택하는 능력의 개별성을 확보함으로써, 당시에 목격되었던 동조 현상으로 인한 개인 인식의 주체성 상실을 상쇄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정 경험과 주제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의견을 타인의 그것들과 비교/대조함으로써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자신의 결점을 파악할 수 있는 토론의 질서를 밀은 대화법에서 찾고자 하였다. 비록 열려있는 대화라도 암묵적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토론참가자들이 타인의 문제점을 드러내어 비난하고, 남에게 자신 의견을 강요하지 않는 자유롭고 평등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대화법을 바람직한 토론 방법으로 밀은 간주하였다.

참고문헌

- 조은숙 (2001). 조선중기 사대부 일기 속에 나타난 여성의 지위 고찰 -김돈이 (金敦伊)의 삶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46호, 139-180.
- Aristotle. (1932). *The rhetoric of Aristotle* (L. Cooper, Trans.). New York, NY: Appleton-Century-Crofts. (Original work published B.C. 350).
- Bain, A. (1882). *James Mill: A biography*. London, UK: Longmans, Green.
- Chambers, S. (1996). *Reasonable democracy: Jürgen Habermas and the politics of discourse*.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Clarke, M. L. (1962). *George Grote: A biography*. London, UK: The Athlone Press.
- Devigne, R. (2006). Cultivating the individual and society: J. S. Mill's use of ancient and romantic dialectics.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27(1), 91-121.
- Judson, L. (2011). Meno. In C. C. W. Taylor (Ed.), *The Oxford handbook of Plato*(pp. 161-182).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Loizides, A. (2013). *John Stuart Mill's platonic heritage: Happiness through Character*. Lanham, MD: Lexington Books.
- Macleod, C. (2021). Mill on the liberty of thought and discussion. In A. Stone & F. Schauer (Eds.), *The Oxford handbook of freedom of speech*(pp. 3-19).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Mill, J. S. (1828). The lanches. In J. M. Robson (Ed.), *The*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volume XI - Essays on philosophy and the classics. Retrieved from <https://oll.libertyfund.org/title/mill-the-collected-works-of-john-stuart-mill-volume-xi-essays-on-philosophy-and-the-classics>

- Mill, J. S. (1832). On genius. In J. M. Robson (Ed.), *The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volume I - Autobiography and literary essays.* Retrieved from <https://oll.libertyfund.org/titles/mill-the-collected-works-of-john-stuart-mill-volume-i-autobiography-and-literary-essays>
- Mill, J. S. (1834). The Phædrus. In J. M. Robson (Ed.), *The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volume XI - Essays on philosophy and the classics.* Retrieved from <https://oll.libertyfund.org/title/mill-the-collected-works-of-john-stuart-mill-volume-xi-essays-on-philosophy-and-the-classics>
- Mill, J. S. (1840). Coleridge. In J. M. Robson (Ed.), *The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volume X - Essays on ethics, religion, and society.* Retrieved from <https://oll.libertyfund.org/title/mill-the-collected-works-of-john-stuart-mill-volume-x-essays-on-ethics-religion-and-society>
- Mill, J. S. (1843a). The system of logic, part 1. In J. M. Robson (Ed.), *The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VII.* Retrieved from <https://oll.libertyfund.org/title/mill-the-collected-works-of-john-stuart-mill-volume-vii-a-system-of-logic-part-i>
- Mill, J. S. (1843b). The system of logic, part 2. In J. M. Robson (Ed.), *The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VIII.* Retrieved from <https://oll.libertyfund.org/title/mill-the-collected-works-of-john-stuart-mill-volume-vii-a-system-of-logic-part-ii>
- Mill, J. S. (1859). *On liberty.* London, UK: J. W. Parker. 서병훈

- (역)(2013).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서울: 책세상.
- Mill, J. S. (1861). *Utilitarianism*. London, UK: Parker, Son, and Bourn. 이을상(역)(2008). <Utilitarianism 공리주의>. 서울: 지만지.
- Mill, J. S. (1866). Grote's plato. In J. M. Robson (Ed.), *The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volume XI - Essays on philosophy and the classics*. Retrieved from <https://oll.libertyfund.org/title/mill-the-collected-works-of-john-stuart-mill-volume-xi-essays-on-philosophy-and-the-classics>
- Mill, J. S. (1869a). An examination of Sir William Hamilton's philosophy. In J. M. Robson (Ed.), *The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volume IX - William Hamilton's philosophy*. Retrieved from <https://oll.libertyfund.org/title/mill-the-collected-works-of-john-stuart-mill-volume-ix-william-hamiltons-philosophy>
- Mill, J. S. (1869b). Editorial notes on James Mill's analysis of the phenomena of the human mind. In J. M. Robson (Ed.), *The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volume XXXI - Miscellaneous Writings*. Retrieved from <https://oll.libertyfund.org/title/mill-the-collected-works-of-john-stuart-mill-volume-xxxi-miscellaneous-writings>
- Mill, J. S. (1869c). *Subjection of woman*. Philadelphia, PA: J. B. Lippincott. 서병훈(역)(2006). <존 스튜어트 밀 여성의 종속>. 서울: 책세상.
- Mill, J. S. (1873). *Autobiography*. London, UK: Geoffrey Cumberlege, Oxford University Press. 최명관(역)(2010). <존 스튜어트 밀 자서전>. 서울: 창.
- Mill, J. S. (1874). Nature. In J. M. Robson (Ed.), *The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volume X - Essays on ethics, religion, and society*. Retrieved from <https://oll.libertyfund.org/title/mill-the-collected-works-of-john-stuart-mill-volume-x-essays-on-ethics-religion-and-society>

- Pörksen, U. (1995). *Plastic words: The tyranny of a modular language* (J. Mason & D. Cayley, Trans.).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88).
- Ryan, A. (1997). *Mill: Texts, commentaries*. London, UK: Norton and Company.
- Schleiermacher, F. D. E. (1833). The worth of Socrates as a philosopher. In G. F. Wiggers (Ed.), *A life of Socrates*(C. Thirlwall, Trans., pp. cxxxiii-cxlv). London, UK: Taylor and Walton.
- Urbinati. N. (2013). John Stuart Mill, romantics' Socrates, and the public role of the intellectual. In K. N. Demetriou & Antis Loizides (Eds.), *John Stuart Mill: A British Socrates*(pp. 49-74). New York, NY: Palgrave Macmillan.
- Villa, D. (2001). *Socratic citizenship*.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투 고 일 자: 2023년 07월 05일

심 사 일 자: 2023년 08월 01일

게재확정일자: 2023년 08월 24일

Abstract

The Individual as the Subject of Cognition

From the Meeting between John Stuart Mill's Discussions on Epistemology and the Socratic Dialogue

Hokyu Lee

Professor, Department of Media Communications, Dongguk University-Seoul

The reason why John Stuart Mill emphasizes both the liberty of the expression of opinion and the liberty of discussion is for the liberty of knowing, resulting in the subject of cognition. These discussions are closely related with the import of individuality. By developing the individuality with which human being can judge and choose their own plan of life by themselves, human beings can regain the loss of the subject of cognition, resulting from the conformity to others' opinion which was prevalent at 19th in England. By making comparison of their own interpretations of their experiences as well as of a certain agenda with other peoples' interpretations, they can enhance their own intellectual capabilities through the Socratic dialogue. Even if discussions are open to every body, there are chances of coercing minors to follow the opinions of majority implicitly. Mill considers the Socratic dialogue as the mechanism to secure the discussion order by which every one participates in discussions with equal as well as comes out of their own cage of cognition.

KEYWORDS The Liberty of Knowing, The Cage of Cognition, Socratic Dialogue, The Subject of Cognition